

브라보 - 50대 남성 맞춤형도집회

인터뷰

50대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세대이다. 50대는 인생의 정점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값진 인생인지, 아니면 허무한 인생이었는지 판가름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50대는 위기의 세대이다. 신체기능의 저하, 자신감 상실, 부모와 자녀를 같이 섬겨야 하는 이중부담, 경제적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시기이다.

한국의 50대 남성은 어린 시절에 광복과 6.25를 경험했다. 또 3공화국 시절에는 경제 개발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국고 축적에 큰 공헌을 하였다. 애환과 노고가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세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시기에 외환위기가 닥치는 바람에 보상은 커녕 사회 일선에서 일순위로 현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세대이다.

이번에 온누리교회가 준비한 50대 남성을 위한 모임 '브라보'는 50대 남성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임이었다. 50대만이 아니라 60대, 그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모임이었다. 남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50대에 다시 일어날수 있는 전환점을 만드는 축복의 장이었다. "50대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합니다. 'Bravo, my life'를 외치는 행복한 한마당 축제였다.

<전도집회 대상자 인터뷰>

“ 참 친근하게 느껴져요 ”

저는 교회라는 곳에 난생 처음 왔고 설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흔히 매체를 통해 듣게 되거나 주관적인 관념은 종교나 목사님들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하목사님을 보면서 상당히 겸손하고 인자하고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날 카드에 서명하면서 뒷장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 닿았다'고.

지금 솔직한 심정은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오늘도 시간을 맞추어서 왔습니다.

“이제 결정했습니다”

20대에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직장다니면서 안다니게 되었습니다. 3일간 모두 참석하는동안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왔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동감하고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나만 바로 보고 앞으로만 달렸는데 이제는 가족과 주변의 친구를 돌아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사인도 했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진작부터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스스로 나가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모두 김화수 집사님 덕분입니다. 아내도 대학때까지 다녔는데 이제는 저와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딸이 “아빠, 이 약속만은 꼭 지켜주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마”라고 대답한 것이 브라보 집회에 참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교회는 다녔었는데 사는 게 바빠 소홀해졌어요.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음식 준비도 공들여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좋습니다. 아내는 온 가족이 다 함께 교회 가길 원하는데 워낙 바빠서 걱정입니다.

“ 제 위치를 생각해보았습니다 ”

사실 저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출석하지는 못하고 가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절 지켜보던 친구가 이 집회에 참여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이 성숙해지라며 초청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졌냐고요?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고 50대에 있는 제 위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50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이어령 교수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 믿음을 기대합니다 ”

아직까지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친근한 어울림이 있을 때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믿는게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동창들이 기독교모임을 갖고 있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분위기가 새로워요 ”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제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와보니 컨벤션 같은 분위기라 참 파격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일종의 부흥회일텐데 세대별로 한다는 것도 참 흥미롭다는 생각입니다. 20~30년 직장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보러 왔습니다. 40대 같은 50대도 있고 60대 같은 50대도 있는 것을 보며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들면 하나님 품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왕 시작된 것, 끝까지...”

3일 동안 집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습니다. 첫 날 왔더니 분위기도 좋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부담을 주지 않고 편하게 말씀하셔서 계속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한 것 끝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형수님께서 전부터 계속 교회에 나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초청해주셨어요. 남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껏 추구해 온 부와 명예가 제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깁니다 ”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완 집사님이 제 친구인데 편하게 와보라고 해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프로페셔널 하게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교회에 호감이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깁니다. 오늘 아내도 함께 나왔는데 아내도 좋아하네요.

“ 방학 끝, 개학선언 ”

믿음생활은 청년시절까지 하면서 개척교회에서 봉사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학중’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만한 탓에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마음 문을 닫았습니다. 15년 넘게 방학기간을 가지고 아내는 금식기도하며 우리 가정에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제 개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날 왔을 때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게 다른 문이 열릴 것 같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2개월전에 명예퇴직한 저는 하나님앞에 오는 문도 열리고 월요일에 다른 회사에서 불러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